

광주 인권도시포럼, 세계 인권 중심역할 '톡톡'

인권도시대표·국제기구 참여 다음달 30일 DJ센터서 열려 시, 인권도시포럼 추진위 열어 효율적 개최 방안 등 논의

올해로 9회째를 맞는 광주 세계인권도시포럼이 세계 각국의 인권도시와 인권기관들의 참여가 잇따르면서 세계 인권네트워크 중심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광주시는 31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이용섭 시장 주재로 2019 세계인권도시포럼 추진위원회를 열어 추진상황을 공유하고 효율적 개최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추진위원회 공동위원장인 정진성 UN인종차별철폐위원을 비롯한 장휘국 시교육감, 박성수 광주전남연구원장, 송진호 KOICA 상임이사, 이철우 5·18기념재단 이사장 등 15명이 참석했다.

구체적으로 세계지방정부연합 인권위원회(스페인), 세계지방정부연합 아태지부(인도네시아), 라울발렌베리연구소(스웨덴), Polis연구소(브라질), 국제주거연맹(이집트) 등 5곳에서 ▲추진위 회의 ▲도시

인권 전문가들의 논문발표, 시민참여형 인권토론 프로그램, 노인·여성·장애·이주민·환경 등 8개 분야별 주제회의, 해외 전문가들과 지역사회단체들의 연계 프로그램 등 참여형 프로그램도 다수 운영된다.

한편, 세계인권도시포럼은 광주와 국내외 도시간의 인권경험을 공유하기 위해 2011년부터 해마다 개최하고 있다.

인권활동가들의 제안으로 전국 인권활동가 네트워크 회의를 개최하고, 국내외

인권 전문가들의 논문발표, 시민참여형 인권토론 프로그램, 노인·여성·장애·이주민·환경 등 8개 분야별 주제회의, 해외 전문가들과 지역사회단체들의 연계 프로그램 등 참여형 프로그램도 다수 운영된다.

한편, 세계인권도시포럼은 광주와 국내외 도시간의 인권경험을 공유하기 위해 2011년부터 해마다 개최하고 있다.

/최권일 기자 cki@kwangju.co.kr



지난 31일 오후 광주시청 3층 중회의실에서 열린 '세계인권도시포럼 추진위 회의'에서 이용섭 광주시장(가운데)이 참석자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고흥 '미르마루길' 남도명품길 만든다

전남도 공모, 영광 백수노을길·함평 생태숲길도 선정

2022년까지 40억 지원

고흥 남열해수욕장과 우주발사전망대를 아우르는 '미르마루길'이 '남도명품길'로 선정된다.

전남도는 22개 시·군을 대상으로 '3차 남도명품길' 발굴을 위한 공모를 진행한 결과, 고흥과 영광, 함평을 대상으로 선정했다고 지난 31일 밝혔다.

남도명품길 공모에는 여수·광양·담양·장흥·해남·무안·진도·고흥·함평·영광 등 10개 자치단체가 신청서를 냈었다.

남도명품길 조성사업은 천혜의 경관과 문화·역사자원·스토리텔링을 연계하면서 주민, 전문가 등의 조언을 받아 기존 길을 최대한 활용해 탐방로로 다듬어 선보이는 사업이다.

건설 장비와 시멘트 등을 쓰지 않고 사람 손으로만 다듬는 길이라는 점이 알려지면서 '명품길'을 찾는 매니아층도 생겨나고 있다.

이번에 선정된 고흥 미르마루길은 남열해수욕장-고흥우주발사전망대-용바위-대발길-해안산-우천리-발영대교로 이어지는 8km구간으로

심사 과정에서 고흥의 대표적 관광지원이 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평가됐다.

발 밑으로 탁 트인 남해안 바다 풍광을 감상하며 걸을 수 있고 인근 마을과 연계하면 지역 경제 활성화를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영광 백수노을길(16.7km)도 백수해안과 인근 숲을 따라 서해안 풍광을 즐길 수 있는 친환경 걷기여행길로 조성될 경우 남도의 대표 명품길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됐다.

다만, 전문가 자문을 거쳐 노선 조정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함평 생태숲길(24.83km)도 생태공원을 거점으로 내륙의 자연경관과 수변 경관자원을 아우르는 코스로 평가 받았지만 도로 갖길을 활용한 노선을 조정하고 데크길 조성 방안 등은 지양할 것을 조건으로 선정됐다.

전남도는 자치단체별로 명품길 조성을 위한 사업계획을 마련, 오는 2021년부터 2022년까지 조성에 나설 예정으로 이들 자치단체에 40억의 사업비를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광주 평동3차 산단 화물차 공영차고지 9월 개장

18일까지 신청서 접수

광주시는 화물자동차 차고지 부족으로 인한 불법 주·정차를 해소하기 위해 평동3차 산단단지 내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를 9월에 개장한다고 31일 밝혔다.

공영차고지는 정식 개장에 앞서 지난 7월5일부터 2019세계수영선수권대회조직위 수송센터로 시범 운영 중에 있으며, 수영대회 기간 동안 화물자동차의 차고지 이용은 금지된다.

평동3차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는 지난 2014년부터 올해 7월까지 5년간 부지 3만1036㎡에 총 183억원(국비 126·시비 57)을 투입해 주차시설 258면(화물 182·승용 76)과 주유소, 휴게실, 수면실, 식당, 매점 등 운전자 편의시설을 다양하게 갖추고 있다.

효율적인 차고지 운영을 위해 광주시 도시공사에 위탁해 운영한다. 이용 요금은 대형 화물자동차 기준 월 5만원으로 전국적으로 가장 저렴하며, 차고지 이용자는 휴게동 내 체력단련실, 휴게실 등 편의시설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1일부터 10일까지 위탁사업자인 도시공사에서 주차시설 355면(특대형74, 대형182, 소형99)에 대해 모집공고를 실시하고, 신청서 접수는 11일부터 18일까지 신청서 및 첨부서류 등을 포함해 평동3차 및 진곡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1층 관리사무실에 접수받는다.

당첨자는 8월19일 도시공사 홈페이지 게시하고 당첨자에게는 개별로 문자 통보한다.

또한 주유소, 임대사무실, 편의점 시설 등은 8월중에 입찰공고할 예정이며, 9월 개장 전에 마무리할 계획이다 입찰 공고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시 및 광주광역시 도시공사 홈페이지에서 공고문을 확인하거나 차고지 관리사무실(062-962-6668)로 문의하면 된다.

박갑수 광주시 교통정책과장은 "평동3차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가 9월부터 운영되면 광주 시내 부족한 차고지 해소에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저렴한 이용 요금과 최적의 휴식공간으로 화물 운전자들의 호응을 얻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최권일 기자 cki@kwangju.co.kr

실외기 덮개 시범사업 추진

광주시, 임대 아파트 대상

광주시는 공동주택 에어컨 실외기에서 발생하는 열을 저감하는 '실외기 덮개 시범 사업'을 추진한다고 31일 밝혔다.

실외기는 여름철 폭염에 직접 노출돼 화재 위험, 도심 열섬화 등의 원인이 되고 있다.

공동주택 에어컨 실외기는 2006년부터 실내 설치가 의무화됐지만, 그 이전에 건립한 공동주택은 외부에 설치됐다.

광주 공동주택 40만호 중 31만호에는 외부에 실외기가 설치된 것으로 확인됐다.

시는 사업비 1억5000만원을 투입, 영구 임대아파트인 하남·쌍촌·금호시영 3개 단지와 신창 국민임대아파트를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한다.

실외기에 덮개를 설치하면 발생하는 열이 감소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형호 기자 khh@kwangju.co.kr

내장산 국립공원, 내장·백암산 국립공원으로 바뀔까

장성군, 국립공원 명칭 변경 타당성 조사 11월까지 용역

내장산 국립공원이 내장·백암산 국립공원으로 바뀔 수 있을까.

장성군이 내장산 국립공원에 장성 백암산을 함께 표기하는 방안을 추진하면서 관심이 쏠린다. 수십년간 알려진 이름을 바꿀 경우 발생할 혼선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지난 31일 전남도에 따르면 장성군은 최근 내장산 국립공원 명칭 변경을 위한 타당성 조사 용역에 들어갔다.

장성군은 오는 11월까지 4개월간 진행되는 용역 결과를 토대로 '내장산국립공원' 명칭을 '내장산·백암산국립공원'으로 바꾸기 위한 활동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장성군은 용역을 통해 ▲국립공원 명칭 변경을 위한 의견 수렴 및 타당성 분석 ▲명칭변경 유사사례 조사 및 조정사례 분석

▲명칭변경 추진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대한 조사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전체 면적이 81.7km에 달하는 내장산 국립공원의 경우 정읍(46%)·순창(12%)과 장성(42%)에 걸쳐있는데, 장성에 속한 백암산은 내장산국립공원 전체 면적 가운데 34.2km를 차지하고 있다.

장성군은 1400여년 전 백제 무왕 33년(632년)에 창건한 호남불교의 요람으로 기암괴석과 단풍으로 이름난 백암사가 있는 백암산이 내장산 국립공원이라는 명칭 때문에 그 가치를 제대로 알리기 어렵다는 점을 들어 명칭 변경을 추진한다는 입장이다.

일본의 후지산이 속한 국립공원도 후지·하코네·이즈 3개의 산 이름을 함께 쓰고 있어 당위성은 충분하다는 게 장성군 주장이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다.

명칭 변경 추진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1971년 내장산국립공원 지정 이후 1979년 장성지역 유림을 주축으로 명칭 변경 운동이 일어났지만 정부가 받아들이지 않았고, 지난 2007년에는 지자체 차원에서 명칭 변경을 추진했으나 전북도와 정읍시의 반발에 부딪혀 내장산국립공원 남부사무소 이름을 백암사무소로 바꾸는 데만 족해야 했다.

장성군은 정읍시, 순창군 등과 국립공원이라는 공동의 자연유산으로 함께 변명할 수 있도록 상생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국립공원 명칭 변경은 지자체가 건의하면 환경조사, 주민공청회, 관계기관 의견 청취 등의 절차를 거쳐 국립공원위원회가 결정한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2020학년도 광신대학교 신입생 모집

사랑과 감사의 65년
1954~2019
믿음과 소망으로 100년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

2019학년도 후기 대학원 신입생 추가모집

학부

■ 모집학과 및 모집인원 ※모집인원은 변동될 수 있음.

계열	학과	수시	정시
인문	신학과	30	15
	한국어교육학과	2	2
사범	유아교육과	7	3
사회	복지상담융합학부 (사회복지학 전공 / 코칭평생교육상담학 전공)	31	3
예능	음악학부 (음악학 전공 / 실용음악학 전공)	25	5
총계		95	28

※신학과는 군중사관후보생(군중장교) 선발시험에 응시 가능.
(합격시 학부 4년, 신학대학원 3년 입학금 및 등록금 전액 면제, 기숙사비 면제)
※한국어교육학과는 한국어 교원자격증(2급)을 취득할 수 있음.
※복지상담융합학부는 사회복지사, 보육교사, 건강가정사, 평생교육사, 상담심리지도사, 청소년상담사 자격 취득할 수 있음.
※유아교육과는 유치원 정교사(2급), 보육교사 자격 취득할 수 있음.

■ 학부 전형일정

· 수시모집 : 원서접수: 2019. 9. 6(금) ~ 10(화) · 전형일: 2019. 9. 27(금)

· 정시모집 : 원서접수: 2019. 12. 26(목) ~ 31(화) · 전형일: 2020. 1. 7(화)

대학원

■ 모집학과 및 모집인원

대학원	과정	모집학과	모집인원
신학대학원	석사	신학과(M.Div.)	24
		목회학과(D.Min.)	2
일반대학원	박사	유아교육학과(D.Ed.)	3
		신학과(Th.M.)	10
		유아교육학과(M.Ed.)	6
상담치료대학원	석사	청소년상담지도학과(M.A.)	1
사회복지대학원	석사	사회복지학과(M.S.W.)	4

■ 전형일정

· 원서접수: 2019. 8. 5(월) ~ 16(금)

· 전형일: 2019. 8. 20(화)

입학문의 ▶ 학부 062) 605-1114 / 대학원 062) 605-1115

10027 광주광역시 북구 양산동13로 36